건강 칼럼

목·허리 통증 '신경차단술, 풍선확장술' 어떤 차이는?

김 민 규
힘찬병원 척추클리닉 원장

"신경을 어떻게 성형한다는 건가요? 허리에는 풍선을 넣는 건가요?"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겼을 때 많이 하는 대표적인 시술로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풍선확장술이 있다. 비수술적 치료라 시술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환자분들이 많다.

신경은 아주 예민해 조금만 손상이 되어도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다 보니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이란 이름을 들으면 왠지 위험하게 느껴져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풍선확장술은 풍선을 몸속에 넣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법들은 비교적 안전한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신경차단술의 경우 눌려서 붓거나 염증이 생긴 신경근 주변에 바늘을 꽂고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다. 목이나 허리 통증에 시행할 수 있는데, 허리는 누워있는 자세에서 등 쪽에 바늘을 넣는다. 아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늘을 깊게 꽂지 않고, 등 부위가 통증을 적게 느끼는 부위여서 크게 아프지 않다.

목은 허리보다 얇은 바늘을 이용하지만 목 주변에 혈관이 많아 의사들이 안전하게 바늘을 꽂아도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 등이 생길 수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진다.

신경차단술이 효과가 없을 때는 신경성형술을 고려할 수 있다.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시술 후 유착으로 통증이 있거나 정밀검사에서 신경관 유착이 뚜렷할 때도 신경성형술을 하면 효과가 좋다.

신경성형술은 긴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해 넣어 신경이 눌린 곳까지 올라가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고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다. 내비게이션 카테터와 풍선카테터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때 풍선카테터를 사용하는 시술법이 '풍선확장술'이다.

내비게이션 카테터는 끝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유착된 부위에 도달해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유착을 풀어준다. 풍선카테터는 끝이 풍선 모양으로 생겼는데, 풍선을 부풀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유착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 풍선을 몸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들러붙은 부분을 박리하는 데만 풍선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보통 시술 후 병실에서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다음날 퇴원한다. 다시 말하자면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의 차이는 신경차단술은 주사를 이용하지만, 신경성형술은 긴 카테터를 이용해 유착을 박리하는 데 있다.

신경차단술은 약물을 이용한 치료여서 들러붙은 부분을 떼어낼 수 없어 신경성형술보다 효과는 떨어진다. 하지만 유착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차단술만으로도 효과적으로 통증과 부종을 완화할 수 있다. 환자들은 다양한 증상과 통증을 동반하기에 전문의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시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사 설

한글서예로 만나는 김대중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특별한 전시회가 강암연묵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기스락 1층에서 '김대중 대통령 옥중편지 한글서예전'이 열렸다.

지난 1968년 창립한 강암연묵회는 전북이 낳은 한국 근현대 서단의 대표적 서예가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에서도 명성을 떨친 강암 송성용(1913~1919) 선생의 문하생들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1999년 강암 송성용 선생의 작고 이후 단체명을 연묵회에서 강암연묵회로 바꿨다. 전국적으로 명망과 수준이 높은 회원을 영입한 결과 현재 전국에서 손꼽히는 유명 서예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편지 중 감명 깊었던 구절을 모아 72점의 한글 서예 작품으로 담아냈다.

탄주 고범도, 난원 고현옥, 후강 권윤희, 농인 김기동, 아하 김두경, 소천 김명숙, 유정 김명자, 심석 김병기, 이림 김선희, 누형당 김순희, 소안당 김연, 송계 김용배 등 서예가들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작들은 다양한 서체의 한글로 제작한 만큼 한문서예에 비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지난 11월 26일 문화재청이 한글서예를 국가무형문화유산 신규 종목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한 이후 전국 최초로 한글서예 작품만으로 개최했다.

서예는 '최고의 수신(修身) 예술'이라고 한다. 분노마저도 평화로 수렴하는 것, 그것이 서예의 매력이다. '김대중 대통령 옥중편지 한글서예전'은 우리 사회에 한글서예의 열기를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레이락 피노키오 공연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퓨전 뮤지컬로 무대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퓨전 뮤지컬 공연 'PLAY 樂 피노키오'를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에서 선보였다.

피노키오는 이탈리아의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소설이다. 공연은 전북은행의 후원을 통해 사단법인 꼭두와 공동 기획으로 이뤄졌다. 10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10시 30분, 전북자치도 예술회관 4층 공연장에서 상설 공연을 진행했다.

지난해 제1회 전북 예술관광상을 수상한 꼭두의 기획자 심재균과 함께 했다. 침체되고 있는 전주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시범적으로 기획한 사업이다.

남들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피노키오가 사랑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연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비보잉과 인형을 활용한 퓨전 댄스컬 인형극이다.

특히 연기자들이 특수 제작된 퍼펫마스크를 장착하고 수준 높은 서커스, 마술, 비보잉 등을 통해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아동, 청소년 맞춤형 작품을 선보였다.

공연을 관람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무대에 올라와 캐릭터와 만나보고 세트의 모습을 가까이서 관람하기도 했다.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은 전북은행과 지난해 10월 전북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연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상설 공연이지만 열심히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공연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정부군 전차에서 기념 촬영하는 시리아 청소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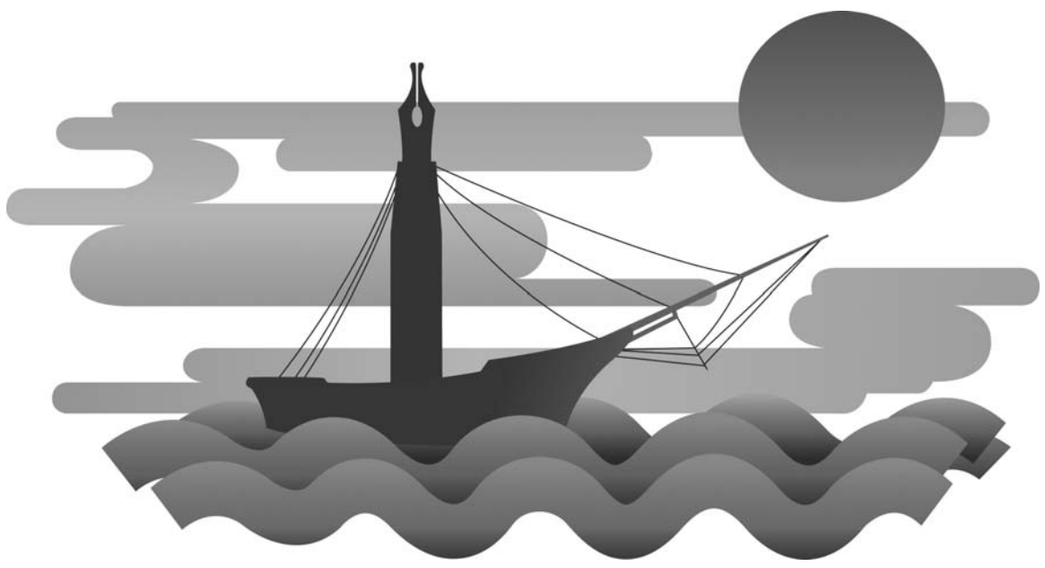
11일(현지시각)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우마이야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시리아 반군으로부터 빌린 소총을 들고 거리에 버려진 정부군 전차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촉구하는 미 고령자들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교육부 앞에서 채무자 연대 고령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종료 전 노년층의 학자금 대출 잔액을 탕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상당수가 학창 시절 받았던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